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구례군 기탁

육미석 기자 misub@gmail.com

구례군은 지난 15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구례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사진>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임직원들이 고향사랑실천에 참여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장길선 구례군수와 임문희 지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임문희 지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장길선 구례군수에게 전달했다.

임문희 지사장은 “두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임직원들이 기부에 동참하였다”며 “우리 직원들의 정성이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2년 연속으로 남다른 구례사랑을 보여주신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임직원분들의 구례에 대한 사랑과 응원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례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